

종합

“용서와 화해, 귀한 유산 남기고 떠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 이모저모

美 올 브라이트 전 국무 등 각국 조문사절단 전두환 전 대통령도 헌화하고 머리숙여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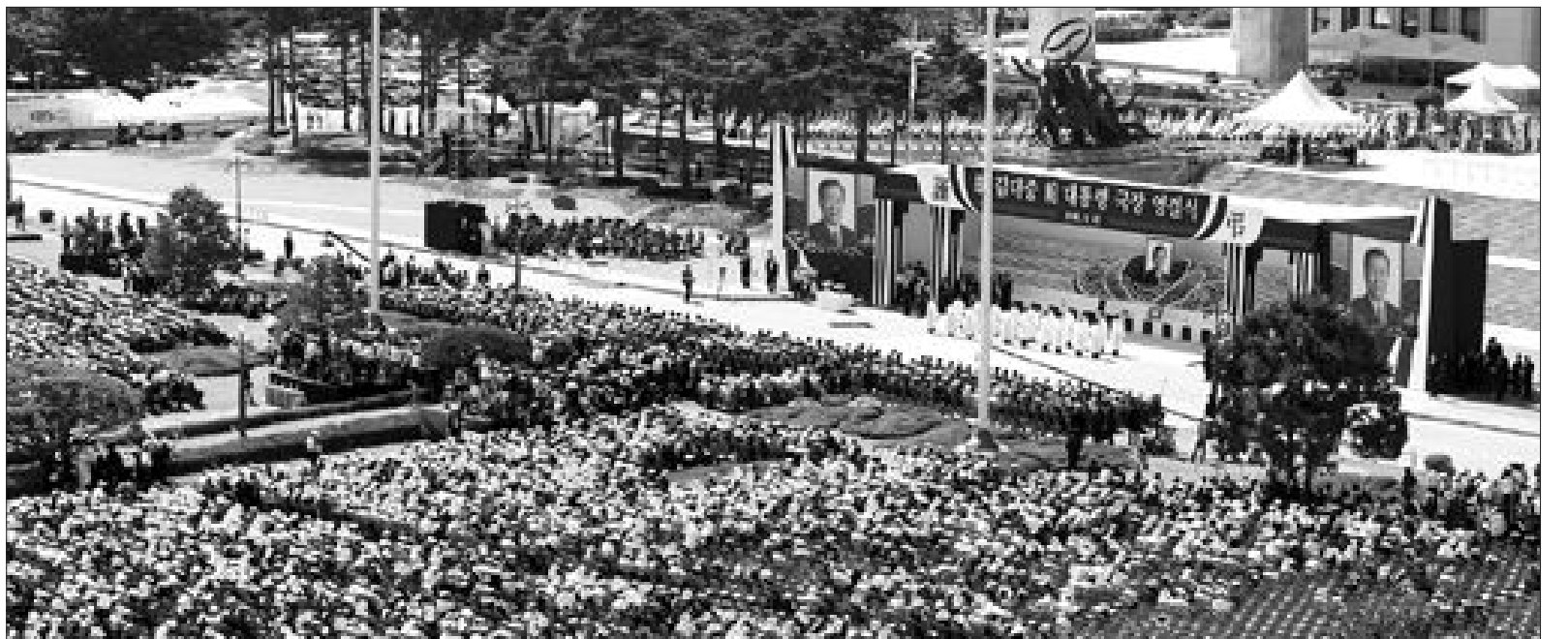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잔디마당에서 각계 인사 및 시민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사회를 맡은 손 숙 전 환경부 장관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신 영구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에 따라 오후 1시55분 조악대의 조곡이 구슬땀을 흘려 퍼지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 차 영결식장에 서서히 들어갔다. 장의위원회측은 이날 영결식에 장의위원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시민 등 2만4천여명을 초청했다.

입법·사법·행정 등 3부의 전·현직 주요 인사와 학계, 종교계, 재계, 시민 사회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은 이날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영결식에 대거 참석해 정파와 노선의 차이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장(場)을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아로새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남북화해와 협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 등 업적을 회고하면서 한 마음으로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는 조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며 “우리는 이러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파·노선 초월 통합 강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23일 영결식은 ‘용서와 화해’라는 고인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모두 용서했고, 용서와 화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기셨다”며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우리 사회 화해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김 전 대통령 영정 앞에 분향, 헌화했다. 김 전 대통령과 경쟁과 갈등의 관계였으나 최근 극적 화해를 이룬 김 영삼 전대통령은 영결식에서 시종일관 압축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신군부의 등장 이후 김 전 대통령과 악연이 맺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김 전 대통령 영정 앞에 헌화하고 머리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했다. “3김(金) 시대”의 한 축인 김종필 전 총리는 건강상 이유로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김 전 총리는 자택에서 영결식을 TV로 시청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순으로 종교의식이 진행됐다. 김 전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였던만큼 최창무 광주대교구장이 집전하는 천주교 의례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 불교에서는 조계사 주지인 세민 스님이, 기독교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삼환 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신형 대표회장이, 원불교에서는 김해봉 대전충남 교구장이 각각 제례를 집전했다.



국장 영결식 엄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23일 오후 이희호 여사를 포함한 유가족,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2만4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공통체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부빙기간 병문안하고 국회 민속소에서 조용한데 이어 이날 영결식에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열렬인 연설을 시작으로 한 영상물은 IMF 외환위기 극복, IT 강국 건설, 6·16 남북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통령 재임시 치적을 담아 4분간 상영됐다. 침통한 표정의 이희호 여사는 영상물 상영 직후 양 옆의 부축을 받아 엮은 미소를 띤 남편 김 전 대통령의 영치역정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약력을 보고했다. 한승수 총리와 박영숙 이사장은 각각 조사와 추도사를 통해

JP, 자택서 TV 시청

○18대 국회에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반복했던 각 당 대표들도 영결식에 참석해 ‘용서와 화해’라는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나란히 김 전 대통령 영정 앞에 헌화하고 영면을 기원했다.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장관, 영국 로드 앤드루 아더니스 교통부 장관 등 11개국 조문사절단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달길 행안장관은 전남 하의도 섬마을 소년인 97년 1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까지의 정적역정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약력을 보고했다. 한승수 총리와 박영숙 이사장은 각각 조사와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열렬인 연설을 시작으로 한 영상물은 IMF 외환위기 극복, IT 강국 건설, 6·16 남북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통령 재임시 치적을 담아 4분간 상영됐다. 침통한 표정의 이희호 여사는 영상물 상영 직후 양 옆의 부축을 받아 엮은 미소를 띤 남편 김 전 대통령의 영치역정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약력을 보고했다. 한승수 총리와 박영숙 이사장은 각각 조사와 추도사를 통해

유족들의 분향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제단에 올라 김 전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이 과정에서 VIP석 뒤편에 있던 한 50대 남성이 “유선자”라고 소리쳐 경호원들이 급히 제지하기도 했다. ○권양숙 여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자신의 손을 잡은 채 오열을 터뜨렸던 김 전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차는 1시간10여분의 영결식이 끝나자 오후 3시12분 서서히 움직였고, 국회 본관 앞, 의원회관 앞을 지나 3시29분 영결식장인 국회회를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다 수감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기선 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1~23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장례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러 헌화 분향했다. <복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DJ 생전 모습 영상물 숙연

○약 20분간의 종교의식이 끝나자 제단 양옆에 마련된 대형 전광판과 스피커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과 육성이 흘러나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열렬인 연설을 시작으로 한 영상물은 IMF 외환위기 극복, IT 강국 건설, 6·16 남북정상회담,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대통령 재임시 치적을 담아 4분간 상영됐다. 침통한 표정의 이희호 여사는 영상물 상영 직후 양 옆의 부축을 받아 엮은 미소를 띤 남편 김 전 대통령의 영치역정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약력을 보고했다. 한승수 총리와 박영숙 이사장은 각각 조사와 추도사를 통해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금호타이어 노조가 23일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 방침에 맞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직장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그동안 임금 7.48%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고, 사측은 임금동결·정기승호 보류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70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맞서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3일 근무조별로 8시간씩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24일에도 근무조별로 전면 파업과 4시간 부분 파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25일에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측은 “지난달부터 노조의 파업으로 매출 차질 규모가 97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전면 파업 등으로 강도가 높아질 경우 직장 폐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거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정상 조업을 벌이기로 한 만큼 직장폐쇄 시기는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되려 했다. 그러나 정리를 고대상되는 24일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25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해 정적이 패운 임금상향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걱정수준의 타협이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희호 여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자신의 손을 잡은 채 오열을 터뜨렸던 김 전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차는 1시간10여분의 영결식이 끝나자 오후 3시12분 서서히 움직였고, 국회 본관 앞, 의원회관 앞을 지나 3시29분 영결식장인 국회회를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다 수감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기선 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1~23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장례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러 헌화 분향했다.

일일만평 - 김중두. A political cartoon titled '일일만평' by Kim Jungdu, depicting a man in a suit talking to a group of people.

분포개장공고(2차) - Public notice regarding a second round of distribution or opening.

사/원/모/접 - Recruitment or job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positions and qualifications.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 Advertisement for a speech and leadership course at Kwangju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education center at Kwangju University.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명리철학 수강생 - Advertisement for a course in philosophy or fortune-telling.

합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 Advertisement for a golf course.